3강 루쉰의 소설과 광인

(1교시)

■ 루쉰의 소설을 읽는 방식

※ 학습목표
루쉰의 소설을 읽는 방법을 이해하고 광인이 발명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 루쉰의 소설을 읽는다는 것

텍스트 안에는 장르의 문법이, 텍스트 밖에는 생산과정과 유통, 그리고 다양한 효과들이 만들어지는 '권력'이 작동하게 된다. 독자는 텍스트를 비평적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작가론의 맥락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텍스트는 궁극적으로 '말걸기'라고 할 수 있는데 루쉰의 텍스트에서 '말걸기'에 대한 대답은 때로는 침묵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의 침묵은 무기이다. 독자가 봐야 할 것은 그가 누구를 향해서 무기를 겨누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무기를 들고 있는 지이다. '말걸기'는 소통을 전제로 한 것이긴 하지만 루쉰의 경우에는 소통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거는 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중요하며 소통을 하려는 루쉰의 노력을 읽어내야 한다. 루쉰의 소설을 읽으면 '정말 이것이 소설일까'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은 서양의 소설(novel)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그것에 요구되는 형식적 틀을 요구하게 된다. 근대가 되면서 이 장르(소설)를 통해 큰 이야기(大說)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이들은 소설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설이 완결되고 훌륭한 것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았다. 루쉰은 이 틀을 고수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한 사람 중의 하나였으며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방식의 소설을 만들어 나갔다.

▲ 『광인일기』 - 광인은 어떻게 발명되는가
①형식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문(지식인들이 쓰던 정통 중국어)으로, 광인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백화문으로 씌어졌다. 즉, 두 개의 글쓰기가 하나의 작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②루쉰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말을 거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익숙한 언어의 문법 혹은 생각들을 깨나가기 위해서 말을 거는 것이며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 『광인일기』이다. 광인은 그 자체의 잘못 때문이기보다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체계나 상황에 의해 발명되는 것이다. 자신들이 정상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광인의 입장에서 보면 '식인'일 뿐이다. 광인은 이들에 대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③서구적 맥락에서의 이성
전지전능한 신이 관장하던 시대가 가고 인간의 이성이 도래하는 시대가 오면서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자연을 개척하고 문명화하기에 이르렀다. 즉 신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세계를 진보시킬 수 있다는 믿음은 종교적 믿음과 다르지 않을 정도가 된 것이며 과학은 이것을 뒷받침해주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과학이나 생물학에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의한 체계적 분류에서 벗어난 것들은 변태, 즉 비정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변태라는 과학 용어가 인간의 삶에 깊이 침투해 들어옴으로써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광인일기』, 『장명등』, 『약』에 드러나고 있다. (푸코의 『광기의 역사』 참고)

※참고

네덜란드의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쉬 [Hieronimus Bosch, 1450~1516] **의 '광인들의 배'**
서양에서는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은 사회의 울타리 밖으로 추방되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3강 루쉰의 소설과 광인

(2교시)

■ 광인은 누구인가

※ 학습목표
루쉰이 광인을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 광인의 언어
광인은 보통사람들과 사고가 다르고 따라서 언어도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루쉰의 무기인 언어는 이성적인 언어가 아닌 강력한 광인의 언어인 것이다. 광인의 언어는 정상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통사구조가 파괴된 소통이 불가능한 언어이다. 이는 익숙한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며 이는 루쉰이 당시에 백화문으로 문장을 쓴 것이 당시 지식인들에게 광인의 언어로 비추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광인을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
루쉰은 근대적 계몽 이성의 작동방식을 살짝 뒤집어버림으로써, 즉 광인으로 하여금 말하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서구적 이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제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이라는 이름의 몽매한 유습을 파괴하고자 한다.

한 개인의 자존심은 특이한 것으로서 속물들에 대한 도전이다. 정신병학에서의 과대광란증을 제외하고 이런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좀 천재적인 점이 있다. 노르다우(헝가리 출생의 독일 의사. 문학평론가) 등에 따르면 광기가 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들은 필시 자기의 사상과 식견이 속물들보다 뛰어나고 또 속물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때문에 세상물정에 대해 불평하며, 속된 것을 미워한 나머지 점차 염세가나 '국민의 적'으로 변해 버린다. (『수감록』 38)

『광인일기』의 광인이 앓고 있는 '피해망상증' 역시 자존심 있는 천재들의 '과대광란증'과 다르지 않다. '과대광란증 환자'들이 세상의 속물들과 싸우듯이, 『광인일기』의 주인공은 '식인'들과 싸운다. 그들은 모두 '사상과 식견이 속물들 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국민의 적'이 되어 추방되거나, '광인'으로 분류되어 격리된다. 또한 정상인들이 광인에게 가하는 살해는 합법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중국의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루쉰은 광인이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보여주려 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